

<미국사무소 이슈페이퍼>

미국 내 한국문화콘텐츠
불법유통현황 및 유형

2007년 12월

KOCCA 미국사무소

< 제목 차례 >

1. 지역별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 유통현황	3
2. 주요 콘텐츠 분야별 불법 유통현황	6
3.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유형	8
4. 현지 관련업계의 저작권보호활동 현황	14
■ 참고자료	20

1. 지역별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 유통현황

□ LA지역의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 유통현황

-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불법 복제 비디오와 DVD가 타 아시아인 커뮤니티에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LA지역에 위치한 차이나타운과 리틀 도쿄의 대형 비디오 대여점에는 불법 복제된 각종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
- 또한, 이들 매장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DVD로 출시되지 않는 한국영화가 DVD로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편당 약 \$5~\$8 선으로 책정돼 있고, 한인 타운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판매되는 \$25의 원본 가격과 비교해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
- 현지 한인 영화 및 드라마 DVD판매 업소 관계자들의 인터뷰 조사결과 미국 내 일부지역에서 아시아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화 DVD등을 대량 불법복제 해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 문화콘텐츠(방송영상물)의 경우 대량 불법 복제보다는 업소 자체적으로 복제해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이런 자체적인 소규모 복제 및 유통은 대규모 불법복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주요 중국 커뮤니티의 비디오점의 경우 10년 이전의 한국 TV드라마부터 최근 신작 드라마와 영화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영화의 경우 편당 \$8~\$10에 판매하고 있으며, 대여는 \$1~\$3에 이뤄지고 있음. 특히, LA지역 차이나타운의 한국 음반 및 영화·드라마 DVD판매점 관계자들의 인터뷰조사 결과 차이나타운 등 중국계 업소에서 유통되는 한국 문화콘텐츠(영상물)는 약 90% 이상이 불법 복제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만이나 홍콩 등에서 합법적인 판권을 구매하였다고 해도 미국 현지에서 \$10 미만으로 판매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DVD는 평균 \$30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뉴욕지역의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 유통현황

- 미국 내 아시안 미국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 가운데 하나인 뉴욕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뉴욕의 플러싱 지역에서 중국 등 아시아권 영화와 음반 등을 함께 판매하는 중국계 대형 비디오 대여점에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복제품들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난 2000년 이후 한류 현상에 힘입어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해 왔고, 최근 미국 지역 특히 한인과 기타 아시안 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오고 있음.
- 특히, 최근 미국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현상과 함께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복제 DVD·VCD·VHS의 유통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국계 비디오 대여점에는 한류 현상이 처음 발생된 문화권답게 국내 주요 영화 및 드라마 히트작 뿐 아니라 일반 한국영화·드라마·시트콤까지 매우 다양한 콘텐츠들을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커뮤니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한국 문화콘텐츠들의 경우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 인쇄가 조잡하고 외부에 정식 라이선스에 대한 경고나 한국 제작사에 대한 명시가 없어 한 눈에 봐도 불법복제품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미국 내 중국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 복제품, 특히 영화는 홍콩에서 대부분 VCD와 일부 DVD로 들여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지만, 홍콩에서 들여오는 원본의 경우에도 현지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VCD이며, 이를 미국 현지에서 VHS와 DVD포맷으로 다시 불법복제 해 유통시키고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VHS 포맷이 없이 일반 PC의 CD롬에서 재생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VCD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어 VCD가 가장 대표적인 영상물 저장매체로 사용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인터넷의 P2P등 불법 파일교환 방식을 통한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불법 유통된 국내 문화콘텐츠가 미국으로 VCD 또

는 DVD 형태로 유입되고 현지에서 다시 VHS나 DVD형태로 불법복제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

□ 시카고지역의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 유통현황

- 지난 2004년 국내에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최다 관객 동원의 기록을 수립하며, 성공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복제품들이 유통된바 있음. 특히, 국내 비디오 출시 전부터 극장에서 불법 촬영되어 불법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되어온 파일들이 미국 내에서 VHS로 제작되어 LA, 뉴욕, 시카고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된 바 있음.
- 특히, 미국 내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1차 불법복제품이 제작되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으로 점차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등을 통해 국내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영화콘텐츠의 불법복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유입되거나, 캐나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하와이지역의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 유통현황

- 지난 2007년 4월 현재 미국 하와이 주 지역 내 편의점이나 스와밋(Swap meet) 마켓 등에서 불법복제된 비디오게임, 영화, 음반 등이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미국 연방 이민통관 집행국에 따르면 중국, 한국,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홍콩 등지에서 모조품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연방수사국은 이와 관련하여, 주로 현지에서 대규모로 불법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가 정식으로 불법복제품 소유자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미국 내에서 복제된 비디오게임을 실행시킬 수 있는 개조된 게임기를 판매하는 불법 업체들도 있어 날이 갈수록 불법복제시장은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최근 연방수사국은 2년간의 추적 끝에 개조된 XBOX 게임기를 600 달러에 판매해온 한 하와이 주 거주 주민을 검거했으며, 올해 2007년 5월 재판에서 연방교도소에서 2년 복역, 4개월간의 가택연금,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한바 있음.

2. 주요 콘텐츠 분야별 불법 유통현황

□ 한국 영화 및 TV드라마콘텐츠 불법 유통현황

- 영화콘텐츠와 TV드라마콘텐츠(영상물)의 불법 유통 경로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국내 불법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아시아 제3국의 불법온라인 웹사이트 다운로드, 미국 현지 동영상 사이트(Youtube 등)를 통한 유통을 들 수 있음.
- 그 밖에 일반 영화 및 TV드라마콘텐츠의 패키지 불법 유통 경로는 크게 현지 대규모 DVD 불법복제 조직, 아시안 커뮤니티의 비디오 소매/대여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불법복제 및 유통,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제3국을 통한 불법복제품 밀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 경로는 서로 연계되어 불법복제와 유통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 한편,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한국 영화 및 TV드라마의 DVD/비디오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아시안 커뮤니티 가운데 특히, 중국과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한국 영화 및 드라마 DVD/비디오는 약 20~30%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패키지 불법복제 및 유통에 국한된 것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규모를 합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일본 커뮤니티의 경우 국내 TV드라마의 소매점 판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수 있으며, 복제에 의한 판매와 대여가 가능함. 반면, 중국과 베트남

남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주로 복제에 의한 판매권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각 아시아 커뮤니티별로 현지에 배급사가 있지만 중국어 자막이 없으므로, 자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내 중국 커뮤니티로 유입되고 있음. 특히, 배급사에서 공식적으로 한국드라마의 자국어 자막처리 및 더빙작업을 하는데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자국으로부터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 현지 국내방송사 업계관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TV드라마콘텐츠가 합법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방송되기까지 현재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합법적인 절차는 외주사에 의한 드라마제작, 국내방송, 더빙/자막 작업, 해외관련 판매, 해외방송으로 이어짐.
- 반면, 불법유통의 경우 국내 방송 종료시점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해외에서 불법복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하며, 빠른 경우 보통 2일 이내에 온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영문 및 제3국어 등으로 자막처리까지 완료된 불법복제품들이 시장에서 대여/판매되기 시작함. 불법 유통경로는 국내방송, 자막(Fan Subbing), 불법다운로드, 해외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그 단계가 매우 단순하고 일부 열성적인 시청자들에 의해 불법 웹사이트나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올려지고, 국내외 한국 영화 및 드라마 팬들에 의해 영어 및 제3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됨.
- 한편, 미국 현지 방송사 관계자 및 국내 콘텐츠 유통업체들은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에 대한 Production 기획단계에서 해외 판매권을 고려하고, 영문 및 제3국어 더빙/자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한국 음악콘텐츠 불법 유통현황

- 전체적인 음악 산업시장의 지형변화와 함께 최근 미국 내 한국 음악콘텐츠 유통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 CD음반 대신 MP3를 포함한 디지털 음악상품의 유통 범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디지털 음악상품 유통이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음악 불법 다운로드가

크게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 CD음반 등 합법적인 음악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음.

- 미주 한인들 중심으로 한국 음악 불법다운로드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지 한국 CD음반 취급점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업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현지 한국 음악 유통업체 판매자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한국 음악 CD를 유료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거의 없고, 특히 연령대가 낮을 수록 CD상품 구입 소비자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일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이나 국악 상품 등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음악콘텐츠의 경우 특성상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가 매우 용이하고, 양적으로도 피해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현지 합법적인 유통업체에서는 특별히 대응책이 없어 영업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최근에는 불법적인 온라인 웹사이트 뿐 만 아니라 Newsgroup을 통해 국내 주요 최신 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 및 TV드라마콘텐츠와 같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불법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05년 한국 정부(문화관광부)의 새로운 강화된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미주 지역 내 한인 음반업계에서는 국내 불법음원다운로드에 대한 단속강화로 인해 미국 내 실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불법웹사이트를 통한 불법 음악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 한국 문화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유형

□ 비디오 소매·대여점의 불법복제 및 유통

- 미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의 대표적인 불법복제·유통은 한인 및 기타 아시아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업중인 비디오 대여점 및 소매점들을 통한

콘텐츠 불법복제 및 판매 행위를 들 수 있음. 한인 비디오 소매·대여점들의 경우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방송사 등으로부터 무한정 복제권을 받아 일부 수익이 환원되고 있지만, 기타 아시안 커뮤니티의 경우 아직 대부분의 소매·대여점들이 자체적인 불법복제와 유통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

- 현지 한인 영화 및 드라마 DVD판매 업소 판매자들의 인터뷰 조사결과 미국 내 일부지역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화 DVD등을 대량 불법복제 해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 문화콘텐츠(방송영상물)의 경우 대량 불법복제보다는 업소 자체 복제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이런 자체적인 소규모 복제 및 유통은 대규모 불법복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피해가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슈화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한인 및 아시안 미국인들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오렌지 카운티와 LA카운티 지역 한인 비디오 대여 업소들이 한국영화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DVD로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이들 업소는 DVD 불법복제 및 판매 행위를 연체료를 포함한 장기대여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음.
- 그 동안 대부분의 한인 비디오 업소는 VHS 테이프로 한국영화를 대여해 왔으나, 복제 테이프의 저 화질에 대한 소비사의 불만 해소를 위해 점차 고품질의 DVD를 불법적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편당 대여 비용 \$2에 장기 대여 및 연체료 개념으로 \$1~\$2 정도를 더 높여 \$4에 판매하고 있음. 한편, 한인 비디오 대여점이 밀집되어 있는 LA한인 타운 등에서는 DVD는 1개당 \$2 정도에 판매하고 있음.
- 특히, 업소에서 무한복제의 권한을 취득하여 무한정 복사가 가능한데다가 VHS테이프의 경우 복사하는데 2시간이 걸리지만 DVD는 빠르면 10분이면 한 장을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여업소의 불법복제가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한인지역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커뮤니티를 지역을 통해 비디오 소매·대여점의 자체적인 불법복제 및 판매·대여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지에서 국내 콘텐츠 배급업자들에 의한 단속이나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를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

-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20~30대 한인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에서 각종 동영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개설되는 한편, 기존의 포털 웹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적인 동영상 콘텐츠가 널리 유통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전문 웹사이트인 Youtube.com을 통해서도 한국 영화 및 드라마 콘텐츠들이 공공연히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 내 한인들을 중심으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P2P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TV드라마, 최신 개봉영화 및 최신 음악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주 한인들이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P2P 인터넷사이트는 파일구리, 피디박스, 프루나, 섀파일, IPOP 등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국내의 P2P사이트들은 사용자들이 만든 홈페이지에는 영화·음악·게임·TV 드라마·애니메이션·컴퓨터 소프트웨어·만화·소설 등 거의 모든 콘텐츠를 망라한 카테고리도 잘 정리되어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을 손쉽게 하고 있음.
- 한편, 국내 콘텐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 영화 및 TV드라마의 미국 내 공식적인 온라인 배급사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현지에서 VOD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국내콘텐츠 유통은 거의 100%가 불법적인 유통으로 간주 할 수 있음.
- 한국 음악콘텐츠의 경우 한인을 중심으로 불법다운로드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음악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현지에서 한국 CD음반 취급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지 한국 음악 유통업계 관계자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한국 음반 CD를 유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고, 클래식이나 국악상품 등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불법복제 하드디스크를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

- 한인 비디오업체가 각종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이어 불법 복제 하드디스크 유통으로 인해 관련 업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컴퓨터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디빅스(Divx) 플레이어 하드디스크에 한국 영화 및 드라마를 저장해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디빅스 플레이어는 PC의 동영상, 음악, 사진 등을 TV에 연결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한 개의 하드디스크에 수백편의 동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불법 온라인 웹사이트 다운로드를 통한 무제한적인 불법복제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LA지역의 비디오 업소들로 구성된 '한인비디오미주연합회'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하드디스크 제조 및 판매는 LA 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이 비디오가게에서 불법 디빅스 하드디스크 판매 여부를 문의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또 디빅스를 이용한 불법 프로그램 판매 행위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2월부터 한인비디오미주연합회와 비디오 대여 업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유통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미주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불법 복제 하드디스크의 유통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인 비디오 업소는 물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주요 방송사 KBS, MBC, SBS 등과 각사 콘텐츠 보호를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며 이미 현지 경찰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음.
- 특히, 현지 방송사 관계자 조사 결과 디지털 기술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업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서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합법적인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단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2개

업체 3개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한 바 있음.

□ 인터넷 TV수신기를 통한 불법방송물 유통

- 2007년 6월부터, 한국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의 미국 내 불법 유통에 대해 현지 한국 방송사들이 강력 대처를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불법 업체들의 프로그램 유통 방식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TV 수신기'나 'VOD 주문형 비디오' 등 첨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불법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특히, TV에 연결된 셋톱박스(STB)를 통해 인터넷으로 불법 콘텐츠를 다운받아 저장하고 TV 수상기로 시청이 가능한데, 현지에서 이러한 셋톱박스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현지 방송사들은 이들 불법 IPTV관련 장비판매 업체들에 대한 특별 단속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셋톱박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구매한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가정에서 불법으로 콘텐츠를 다운받아 시청할 경우에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함.
- 이 방식은, 인터넷 TV 수신기(IPTV)를 시청자가 TV에 연결해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업체에서 방송사들과의 계약 없이 불법적으로 회원과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방송국과 콘텐츠 계약을 맺지 않고 주문형 비디오(VOD)나 인터넷 TV 서비스를 통해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인데 현재 미국 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수 백개 이상 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의 국내 콘텐츠 불법이용

- LA 한인타운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우나,

찜질방, 병원 등 다수의 공공장소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상영해주는 일이 판행처럼 되었으며, 이들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최근 LA지역 인근의 찜질방들의 경우 '영화방'을 별도로 설치해 이용 고객들에게 한국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으며 한인 타운 내 병원들 중 상당수도 진찰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대기실에서 한국영화와 오락프로그램 등을 상영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타운 내 식당 및 주점 유치원 학원 양로병원 등도 고객이나 학생들에게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음.
- 미국 내 한인들에게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영화나 비디오 상영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영화 및 방송 콘텐츠 배급사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단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콘텐츠별로는 한국 영화 DVD 나 TV방송물의 공공장소 상영과 함께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이용되는 국내 음악콘텐츠의 경우 대부분이 합법적인 저작권료 지불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불법복제품 밀수와 현지 대규모 복제를 통한 불법유통

- 한인 커뮤니티는 주로 비디오 소매·대여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불법복제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등을 포함하는 현지 아시안 미국인 커뮤니티에는 현지의 자체적인 불법복제 및 유통 이외에도,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불법복제품 밀수와 현지에서의 대규모 제2차 불법복제 및 유통을 통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불법이용이 이뤄지고 있음.
- 앞에서 지적한 열성팬들에 의한 국내 드라마의 제3국어 또는 영문 자막 삽입을 통한 불법적인 콘텐츠 배포에 이어 주로,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지에서 자국 내 불법유통을 위한 1차 대규모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이 가운데 일부분은 캐나다나 미국 등지로 밀수입되며, 이는 대부분 캐나다나 미국 현지의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렇게 밀수된 불법복제품은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불법복제 조직을 통해 2차 복제가 이뤄지며, 이들은 다시 전국의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됨. 특히, 미국 내에서 제3국 언어로 합법적인 배급권을 획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3국 언어 자막 또는 더빙물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복제된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중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한국 영화콘텐츠의 경우 대부분 홍콩에서 밀수입되고 있으며, VCD와 일부 DVD로 들여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지만, 홍콩에서 들여오는 원본의 경우에도 현지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VCD이며, 이를 미국 현지에서 VHS와 DVD포맷으로 다시 불법복제 해 유통시키고 있음.
-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인터넷의 P2P등 불법 파일교환 방식을 통한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불법 유통된 국내 문화콘텐츠가 미국으로 VCD 또는 DVD 형태로 유입되고 현지에서 다시 VHS나 DVD형태로 불법복제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

4. 현지 관련업계의 저작권보호활동 현황

- 미국 내 현지 한국 문화콘텐츠 배급 및 유통 업체들을 중심으로 현지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저작권보호활동이 점차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됨. 특히, 국내 주요 방송사와 영화 배급사, 현지 비디오 소매·대여점 등 이해관계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동 법률 대응, 협의회 구성, 현지 계몽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활동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음.
- 한편, 미국 내에서 한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심화됨에 따라 현지에서 비디오업소들을 중심으로 KBS, MBC, SBS등 주요 방송사와 각 총판업체에게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적으로는 LA, 뉴욕, 뉴저지, 시카고, 하와이 등 다수의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한국 문화콘텐츠 보호를 위한 계몽활동과 함께 관계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반면, 방송사 및 영화 배급사, 비디오 소매·대여점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경제적 손익, 자사의 현지 이미지 등의 이유로 국내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단속 및 계몽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임.

□ DVL 엔터테인먼트사의 콘텐츠 보호활동현황

- 미국 LA지역 현지 한국영화 비디오 유통업체로서 국내 'CJ 엔터테인먼트 & 시네마 서비스', '쇼박스'등의 캐나다 및 북미주지역 영화 비디오 (DVD) 배급을 담당하고 있음.
- 지난 2004년부터 CJ사가 제작한 한국영화 비디오의 미주지역 공식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과 경로를 통해 영화들이 유통돼 왔다고 판단되며, 최근 CJ영화 비디오 판권을 획득함에 따라 향후 영화 원본을 바탕으로 디비베타 방식의 고화질과 서라운드 방식의 고음질 비디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배급 영화 첫 부분에 DVL 로고와 함께 불법복제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합법적인 경로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기타의 불법 유통 비디오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한편, 기존 대부분의 한국 영화콘텐츠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경고문등이 제대로 삽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DVL은 이번 CJ 판권계약을 계기로 불법 복제 및 유통 비디오에 대해서 현지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으로, 미국 현지 불법 비디오 공급업체 2~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임.

□ KBS, MBC, SBS 국내방송사들의 현지 콘텐츠보호활동

- 국내 주요방송 3사(KBS, MBC, SBS)의 미국지사를 중심으로 미국 내 저작권 보호 협의회(가칭)를 2007년 6월부터 구성하였음.
-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작권 일부 위반업체(2개사)에 대한 소송을 합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종 협의과정에서 일부 참여 방송사의 공익성 문제 및 대상 업체들의 영세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특히, 국내 방송3사들이 실제 소송비용 대비 승소에 대한 실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불법업체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언론 보도를 통한 경고를 하고 있음.

사례 1) Nowtel

- 팸플릿,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국내 드라마/방송물에 대한 불법적인 더빙 인력을 모집하는 등 현지 비디오 유통시장에 매우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였음.

사례 2) MissyUSA

- 미국 내 대표적인 한인 여성 이민자 커뮤니티 웹사이트로서 국내 공중파 드라마를 미국 내에 불법적으로 재전송하는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임. 주요 방송사 및 현지 공식 배급사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동영상 삭제요청 및 경고 등을 통해 자체 단속하고 있으나, 비용의 한계로 인해 실제적인 효과는 높지 않은 상태임.

□ IMX America의 콘텐츠 보호활동현황

- 2006년에 설립된 IMX America는 아시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미국 내에 인터넷으로 배급하는 전문 업체로서 일본 IMX가 전액투자해 미국에 설립한 미주법인임. IMX는 '호텔리어'등 드라마의 일본 내 DVD 유통, 배용준의 일본 내 매니지먼트 사업등으로 아시아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태왕사신기'의 제작비로 40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음.
- 미국 내 한국콘텐츠의 웹기반 VOD서비스 중 유일한 합법적인 사업자로 주로 한국 MBC 및 대만 드라마의 미국 내 인터넷 유통권을 확보하였음. ww.broasia.com에서 다운로드 VOD 형식으로 서비스 하는데 드

라마 1편당 서비스 가격은 \$1.99 수준임. 하지만 한국 지상파들의 홀드백과 미국 현지 불법 P2P 사이트들의 한국콘텐츠 서비스로 인하여 미국 내 VOD 사업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FTA과정에서 한국 내 미국 문화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바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 VOD서비스 등을 통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미국 내 불법유통 정도와 규모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음.
- 미국 TV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불법 자막서비스가 성행하는 것과 같이 한국 TV드라마의 경우 한국 방송 일을 기준으로 1주일 후면 영문 자막을 넣은 불법적인 한국 드라마가 온라인 VOD 서비스 등을 통해 미국 아시안 커뮤니티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함.
- IMX의 경우 미국 내 한국 및 아시아 방송 콘텐츠의 VOD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여 주로 한국 관련 불법 웹사이트, P2P사이트, 클럽형 웹하드,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 서비스와 관련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의 경우 약 90%이상 삭제조치하고 있음. 하지만, 인력 및 비용측면에서 고소고발 조치등의 적극적인 법적제재에는 한계가 있음.
- 자사의 이러한 자체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VOD 서비스 사용자들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보호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예를 들면, 자사가 유료로 VOD서비스하는 MBC의 TV 드라마에 대해 여러 곳에서 무료로 불법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오히려 왜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으며, 오히려, MBC측에 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에는 국내의 Daum, Naver등의 포털, 클럽형 웹하드, P2P 등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이외에도 미국 현지에 서버를 설치하고 미국 내 한인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MissyUSA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그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현지(필라델피아)에서 서버를 운영하면서 한국

내의 모든 불법 웹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 P2P, 클럽형 웹하드 사이트들의 링크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다운로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무료가입을 통해 국내 거의 대부분의 불법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 세계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Youtube를 통해 홍보하거나 불법 동영상을 upload하고 있음.

- 최근 한류 등의 영향 등으로 미국 내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드라마 및 영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거 일부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을 하던 업체들이 아시안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화/드라마 판권 취득을 통한 시장 양성화에 나서고 있는 현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현재 일부 방송사에서는 한인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기적이고 연속적이지 못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 최근 IMX는 SBS 드라마 “전의 전쟁”의 경우 영어자막 판권을 구입했지만, 국내 드라마 방송 후 1주일 후에 미국 내에서 불법제작 유통된 영어자막판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

□ CJ Entertainment America의 콘텐츠 보호활동현황

- 한국 CJ Entertainment의 미주 법인으로서는 미국 내 자사 영화콘텐츠를 극장, 비디오, TV, VOD 등을 통한 직접 배급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에 아시아 영화(무술영화, 공포영화 등등)와 그 리메이크(무간도, 시월애 등)의 인기로 인해 자사 콘텐츠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유통경로와 함께, 리메이크, 공동제작(Co-production)을 통한 콘텐츠 배급·유통을 계획 중임.
- 현재 미국 내 한인타운 비디오 대여점과 인터넷에서 CJ Entertainment사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거의 모든 콘텐츠들이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 협력사와 함께 불법 대여점, 인터넷 불법다운로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는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자사 콘텐츠들이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 불법복제 → 복제 후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로 악순환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한편, 미국

- 내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국내 콘텐츠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아시안 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본국 등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복제물의 불법적인 유통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지 정부의 단속 활동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 한편, CJ Entertainment 한국 본사에서 불법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대기업으로서 CJ는 미국 내 불법콘텐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특히, 미국 Koreatown 내 CJ의 비디오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배급사가 한인타운 내 불법복제 등에 대한 1차적인 계몽 및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만연하고 있는 자사의 불법복제품들로 인해 회사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점도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한인타운 내 비디오 대여점들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쉽게 해결 될 수 없는 매우 신중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미국 내 특히, 한인타운 내 불법복제 문제는 향후에도 매우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참고자료

- 미주 지역 주요 방송3사 (KBS, MBC, SBS), CJ Entertainment, IMX America 관계자 인터뷰
- 미주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현지 일간지 관련자료
- 기타 현지 주요 일간지 관련자료